2016
세상의 소금

스테판 월리스

원초적이면서도 신비한, 힘이 있고 세련된, 한국 디자이너 미니멀 리스트 예술가, 최 병훈의 작품들은 무엇 보다도 심플하다. 현대적 감성과,동양 문화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그가 돌, 나무, 금속 등을 이용해 만든 가구들은 다양한 감촉들을 지니고 있다.

2014년 미국 뉴욕 프리드먼 벤다 갤러리에서 열린, 그의 생애 첫 개인전에서 최 병훈은, 다양한 벤치들을 선보였는데, 그 벤치들은 거대한 바잘트(현무암) 블록들을 깎아서 만든, 캘리그라피 붓 놀림에서 감명을 받은 서정적인 형태이다. 그 중 몇개는 벤치 표면을 그 소재 그대로 두었으며 나머지는 모두 윤이 흐르는듯한 검정색광택을 냈다.

프리드먼 벤다의 파트너 제니퍼 올신은 “우리는 최병훈씨가 더욱 다양한 재료들을 이용해서 좀 더 야심있고,큰규모로 작업하는데 격려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가 저희 갤러리에서 전시를 통해서 그의 소중한 작품들이 과연 가구인지 조각상 인지, 그 오래된 질문을 자문하며 그 모호함을 느끼게 되는, 자신의 창작에 대해 한번 더 돌아보게 하고 숙고하는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거주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최병훈은 12월17일에 공개할 12가지의 새 작품들을 갖고 프리드먼 벤다 갤러리에 다시 올 예정이다. 그는 이번에도 광범위하게 현무암 (바잘트)을 이용해 작업을 하지만 이번 중심 테마가, 말그대로 정말 ‘물’ 이다. 그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들은 3개의 바잘트 분수인데, 하나는 거의 7.5피트의 높이를 가졌고 양쪽엔 부드럽고 어둡게 패여 있는 작은 폭포들이 있다. 최병훈은 이를 보며, “동양에는 최고의 선(善)은 물 같다는 말이 있어요. 수많은 학자들이 흐르는 물을 보며 삶의 지혜를 얻었죠. 제 분수들은 명상과 자기 수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에요.”라고 덧붙였다.

또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주된 요소는 옻칠인데, 최병훈의 경력으로 그가 처음 사용하게 된 성분으로 35년 이상 사용된 재료이다. 그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작품들 중 생물 형태를 연상시키는 테이블 상판은 북가시나무에서 잘라서 만든 것인데, 그 표면을 강변의 조약돌의 부드럽고 매끈한 광택을 내기 위해 옻칠을 했고 자연석의 둥근 바닥부분에 정교하게 얹어서 밸런스를 맞췄다. 이 작품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보면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이 들어갔는지 예상 할 수 있다.

최병훈은 하나하나를 만들기 위해 한국의 전통 옻칠 장인과 함께 작업했는데, 한 작품당 최대 20번 붓질을 겹칠 해 최대한 질이 높고 투명한 효과를 주었다. 옻칠이 방수도 되기 때문에, 최병훈은 이를 이용해 얕은 세면대 들과 받침 없는 작품, 식탁 상판을 만들기도 했다. 그 세면대들이 물로 차면, 희미하게 빛이 나는 옻칠 표면과 그 안에 담긴 액체가 아름다운 광경을 이룬다. 이것은 마치 시처럼 최병훈의 작품들을 동양적인 명상, 자기 성찰과 내면의 고요를 갖게 한다. 거의 20년동안 최병훈 디자이너는 자신의 작품들을 ‘잔상’ 이라는 제목으로 내놓았는데, 그는 ‘과거에 우리가 접하지 못했던 상상 속의 허구들과 조우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게 포인트입니다.’라고 말했다.

삶에서 다양한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우리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모든 것들에 연관되어 있다. 올슨의 말처럼, 최병훈의 작품들은 오픈 마인드와 깊은 생각에 빠지게 한다. “이 작품들은 심미적이고 지적인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이런 작품들을 완성시켜줄 사람들, 이 위에 앉고 그 아름다움을 눈으로 직접 비춰볼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 전혀 쉽지도 않고 이해하기 쉽지도 않기 때문에 아무리 이런 작품을 좋아하더라도 작은 부분에 대해만 알고 있을 것입니다.”